



5도 2촌 실천 앞장서는 공주 풀꽃이랑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가면 '산이 깊어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무성산 자락 아래 "꽃내미 풀꽃이랑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공주의 특산품은 밤이다. 특히 정안밤은 전국에서도 알아준다.

마을 이름이 예쁜 이곳은 하늘에서 보면 마치 화분에 심어놓은 꽃과 비슷하게 생겼다. 마을 앞 고성저수지는 화분을, 마을로 이어지는 길들은 줄기를, 그 줄기에 매달린 잎과 열매는 논과 밭, 그리고 집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풀꽃이랑 마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 공주시로부터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나머지 2일은 농촌에서) 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농촌체험마을로 변화하게 된 후다.

필자는 지난 8월말 대전을 출발해 서세종IC를 거쳐 풀꽃이랑 마을로 향했다. 막히는 길도 없이 대



략 1시간정도가 소요됐다. 마침 이날 부여군 홍산면에 위치한 4개 마을 50여명의 주민들이 '희망마을 만들기 선진지견학'의 일환으로 풀꽃이랑 마을을 들렀다.

홍산면 마을주민들은 먼저 체험관에 들러 풀꽃이랑 마을 소개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발전방향 등의 교육을 받고, 다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떡매치기 체험을 했다. 체험객들은 사실 대부분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었다. 부녀회장님의 설명과 함께 찰쌀밥이 넓은 판에 처억~하니 떨어지니 떡매



〈풀꽃이랑 마을을 찾은 부여군 홍산면 마을주민들이 떡매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치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비록 떡매치기만 체험했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처럼 재미있어 하는 모습에 웃음이 묻어난다.

필자는 이날 체험마을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태(55) 씨를 만났다. 윤 위원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현재 이 마을은 약75가구 160여명이 살고 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약10여 가구는 귀농·귀촌했다고 하는데, 사실 현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아무래도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달라서 힘들지 않겠냐고 윤 위원장은 아쉬워했다. 진정한 귀농 가구는 한 집 뿐이기도 했다.



〈풀꽃이랑 마을 윤성태 마을위원장〉

풀꽃이랑 마을은 마을추진위원회와 영농조합법인의 2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운영의 큰 틀은 위원회에서, 체험관 운영은 법인이 맡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인기있는 체험프로그램은 서리태콩 심기와 수확하기, 밤 줍기, 인절미 만들기 등이다. 무엇보다 연령대별 체험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운영의 묘



〈풀꽃이랑 마을 체험관 전경 및 체험장, 등산로 모습〉



가 아닐까 싶다.

물론 이외 연간 진행되는 체험행사가 상당히 다채롭다. △먹거리체험 = 신약초 엑기스, 떡매치기, 인절미만들기, 흑두부만들기, 나물주먹밥 등 △농사체험 = 알밤줍기, 콩털기, 고구마캐기, 고추따기, 자연비누만들기 등 △생태 체험 = 신약초발효, 토끼몰이, 물놀이 등 △농산물가공체험 = 서리태튀밥, 선식, 청국장, 매주 등이다.

윤성태 위원장은 “아무래도 체험프로그램 방문객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많고, 연간 약1만명이 방문해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친환경농법으로 수확된 서리태콩 등을 가공해서 만든 식품은 1사1촌을 맺은 기관과 직거래장터를 통해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다.”라며 “특히 우리 마을은 정안IC와 세종시 등과 인접해있어 더 많은 방문객 유치를 위해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풀꽃이랑 마을 입구에는 1972년도에 수몰되어 만들어진 고성저수지가 있는데, 봄이 되면 저수지를 시작으로 마을회관까지 이어진 3.6km 벚꽃길이 유명하다. 그리고 저수지 뚝방에는 할미꽃 군락지가 있어 방문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꽃이랑 마을은 현재 ‘정안 아름꽃곶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2014년까지 계획수립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맞춤형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물론 마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지 건물만 짓는 꼴이 되어버리면 마을의 흥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정안면에만 5도 2촌 시범마을이 8개나 있다.”면서 “처음 사업 시작할 당시 지원금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자생력을 길러야하는데, 건물 운영비조차 벌어들이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지원금 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마을의 정체성, 특색이



〈꽃이랑 마을 모습〉



〈고성저수지 모습〉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처음 마을사업을 시작하는 주체들에게 전했다.

아마도 이날 풀꽃이랑 마을을 다녀간 홍산면 주민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마을 주민 모두가 사업에 적극 참여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청양의 알프스마을이 부럽다고 말하는 윤 위원장의 꿈은 아무래도 풀꽃이랑 마을이 하나로 뭉쳐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아닐까?

이듬해에는 잊지 않고 이 마을로 봄꽃 구경을 가 봐야겠다. 5도2촌을 몸소 실천해보고 싶은 맘이기도.

(체험관 041-852-1255 / www.pulk.co.kr)



〈윤성태 위원장의 교육 모습〉



〈정안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완료 후 모습〉



[공주 풀꽃이랑 마을...]



● 찾아가는 길

서울 등 수도권지역 :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로 나오면 공주 방향 23번 국도로 이동... 고성저수지 간판이 있는 운궁 네거리에서 우회전 후 풀꽃이랑마을 유도간판을 따라오면 됩니다.

대전지역 : 공주 방향으로 이동 후 23번 국도로 진입해 천안 방향으로 직진... 위와 마찬가지로 운궁 네거리에서 좌회전해 풀꽃이랑마을 유도간판을 따라가면 됩니다.

- ▶ 주소 : 공주시 정안면 고성길 250-34 (꽃내미 풀꽃이랑 마을)
- ▶ 홈페이지 : www.puk.co.kr